

Christabel and Ethics of Mourning for the Other*

Ilhwan Yo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essay discusses the complex relationship of desires in *Christabel* between Christabel, Geraldine, and Leoline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s of mourning. After hearing her mother's will from the monk, Christabel is dominated by the desire for her mother and wedding day. In her unconscious as the site where her banished desires have gathered and intensified, Christabel figures Geraldine as the double of her lover and mother. She attempts to fulfill her own desire, which, however, cannot be done without replacing and betraying her mother. Indeed, Geraldine can acquire power only by vanquishing the mother and assuming her prerogatives. After recognizing the true nature of Geraldine, Christabel gradually moves beyond the horizon of guilt into affirming the irreplaceability and alterity of her deceased mother in mourning. On the other hand, the spiritually and physically ineffectual Leoline orders the matin bell to be tolled in a measured way, and instates a law in order to ascertain everyone in remembrance of her death. By excluding the meanings of mourning other than the ones that he imposes, he fetishizes his dead wife as an object of "custom and law," and prevents any transformative interaction with her. Later enthralled with Geraldine, Leoline quickly abandons Christabel in her mute anguish, and takes up Geraldine as his new lady. When his feverish excitement about Geraldine reawakens his friendship with Sir Roland, her putative father, Leoline replaces the mourning for his dead wife with the recovery of his friendship with Sir Roland, thus doubly refusing to ethically engage with her.

Key Words: S. T. Coleridge, *Christabel*, Ethics of Mourning, Dialectic of Desire, Alter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 A5A2A01047433).

Copyright© 2021 ELLAK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크리스타벨』과 타자의 애도 윤리학

윤 일 환

I. 서론: 해석의 한계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평생 동안 『크리스타벨』(*Christabel*)(1816)을 완성하려 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독자들은 미결로 남아있는 이 시의 다양한 결말을 예상하며 여러 조각들을 모아 박음질해왔다. 하지만 텍스트의 독특한 특성—미완성의 이야기, 사건 간의 모호한 인과율, 이야기와 무관한 결연 등—으로 인해 그 욕망은 끝내 좌절되고 만다. 독자들은 갈라진 틈을 작가의 생애, 낭만주의 시학, 고딕소설, 정신분석 등으로 메우려 한다. 하지만 디자인이 훌륭하고 박음질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크리스타벨』에 꼭 맞는 해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 시는 여전히 독자들을 당혹시킨다. 스완(Karen Swann)은 독자들의 당혹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크리스타벨』의 독자들은 화가 나거나 그냥 멍청하다고 느끼며... 이 시를 어떻게 특징지어야할지를 도통 알 수 없다”(545). 수많은 독자와 비평가는 『크리스타벨』의 의미를 거듭 재어보았지만, 그 잣대는 여전히 너무 길거나 짧다. 이 시는 언제나 해신 프로테우스(Proteus)처럼 형태를 바꾸어가며 해석의 그물에서 도망치고 만다. 정체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낯선 존재로 변해버린다. 그렇지만 거듭된 실패에도 독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 그것은 이들의 희망이나 오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 『크리스타벨』과 같은 작품에 윤리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이 희미하고 잠정적인 의미를 환기할 뿐이더라도, 독자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거듭 환기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해야 할 몫은, 해석의 한계가 매번 새로운 해석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평가들은 『크리스타벨』의 다층적인 의미와 스펙트럼을 포괄하려 크리스타벨(*Christabel*)과 제럴다인(*Geraldine*)과 리올라인(*Leoline*)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들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텍스트의 안과 밖의 관점에 따라 두 군으로 나뉜다. 텍스트 외부의 관점을 취하는 비평가들은 주로 전기적 접근, 역사적 접근, 비교 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작가의 사상, 시대정신, 고딕소설 장르 등이

어떻게 시에 반영되고 변형되었는지에 집중한다. 예컨대, 애쉬톤(Rosemary Ashton)은 콜리지의 전기적 관점에서 제럴다인의 죄가 불명확한 이유를 찾는다. 웰치(Dennis M. Welch)는 셰익스피어와 동화에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발견한다. 개스킨스(Avery F. Gaskins)는 이 시를 고딕소설의 패러디로 보고 화자의 다중 목소리를 탐구한다. 한편 텍스트 중심의 관점은 프로이트, 클라인, 크리스테바 등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욕망의 변증법, 상징질서의 교란, 화자와 서사의 다중성 등을 분석한다. 예컨대, 더럼(Margery Durham)은 어머니에 대한 크리스타벨의 양가적인 감정을 클라인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포드(Jennifer Ford)는 크리스타벨의 수면장애가 만들어내는 현실과 허구의 중첩된 세계에 초점을 둔다. 메이(Claire B. May)는 크리스테바의 ‘비체’(abjection)의 관점에서 상징질서의 교란과 낭만적 어머니의 극복 문제를 다룬다.

본 논문은 이들 선행 논문을 참고하면서도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죽은 어머니를 대하는 크리스타벨, 리올라인, 그리고 제럴다인 간의 복잡한 욕망의 관계를 애도 윤리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되겠지만, 크리스타벨은 제럴다인을 통해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대체불가능성’(irreplaceability)과 ‘타자성’(alterity)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애도한다. 반면 리올라인은 죽은 부인의 애도를 관습화하고 법제화하여 단일한 의미나 행동 양식으로 통제하고, 또한 죽은 부인의 타자성을 제럴다인과 그녀의 아버지인 롤란드(Roland)와의 화해로 대체하려 한다. 『크리스타벨』에서 애도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크리스타벨의 어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에 자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망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와 법 중심적인 애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자기애와 법으로 망자를 억누르거나 배제하지 말고 타자로서의 망자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II. 크리스타벨의 좌절된 애도: 어머니의 욕망과 제럴다인

『크리스타벨』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크리스타벨의 욕망과 무의식으로 덧칠해져 있다. 그녀의 시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죽은 어머니의 기억이다. 이 기억으로 인해 이야기는 모호하고, 인물들은 양가적이고, 사건들은 사실과 환상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겹침으로 인해 이 시의 서사적 시간은 단선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하나의 이야기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엮어 만들어지고, 이야기의 구성과 진행은 그 구체성을 때와 장소에서 부여받는다. 하지만 배경 설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타벨』의 시작은 불확실한 시간으로 가득하다.

성의 시계로 자정,
 올빼미들은 소리치는 수탉을 막 깨웠다.
 부-잉 — 부-잉!
 다시 들어보라! 수탉의 울음소리를,
 얼마나 졸리게 울어댔는지를,
 부유한 남작 리올라인 경은
 이빨 빠진 마스티프종 암개를 키우고 있다.
 바위 밑 우리에서 암개는
 15분에 한 번씩 네 번, 12시 정각에 열두 번,
 달빛이 비치건 소나기가 오건 언제나,
 너무 크지 않게 열여섯 번 짧게 짹으며
 시계 종소리에 화답한다.

'Tis the middle of night by the castle clock,
 And the owls have awakened the crowing cock;
 Tu—whit! Tu—whoo!
 And hark, again! the crowing cock,
 How drowsily it crew.
 Sir Leoline, the Baron rich,
 Hath a toothless mastiff bitch;
 From her kennel beneath the rock
 She maketh answer to the clock,
 Four for the quarters, and twelve for the hour;
 Ever and aye, by shine and shower,
 Sixteen short howls, not over loud. . . . (1-12)¹

첫 행은, “성의 시계로 자정”이라 명시함으로써,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어지는 “올빼미들은 소리치는 수탉을 막 깨웠다”라는 말은 지금이 자정인지 새벽인지를 알 수 없게 한다.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는 새벽에 우는 닭을 깨운다. 한편 “이빨 빠진 마스티프종 암개”가 시계에 맞추어 짹는 방식은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뒤

¹ 이하 『크리스타벨』의 인용은 Norton 출판본에 의거하고 행수만 표기하며, 모든 번역은 윤준을 사용한다.

죽박죽이다. 그 암개는 “15분마다 한 번씩 네 번, 시간마다 열두 번,” “열여섯 번 짧게 짹음”으로써 지금 듣고 있는 시계 종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암개는 “언제나” 시계 종소리에 화답하기 때문에, 그 화답이 지금 듣고 있는 자정을 가리키는 종소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매시간에 대한 것인지를 독자는 도통 알 수 없다. 시간의 혼돈과 더불어 또 다른 시간 묘사에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다. 화자는 말한다. “다시 들어보라! 수탉의 울음소리를, / 얼마나 졸리게 울어댔는지를”(“hark, again! the crowing cock / How drowsily it crew!”)(필자 강조). 과거에 이미 사라진 울음소리를 다시 들어보라는 화자의 말은 기괴하다. 독자는 이 말이 경험한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들어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눈앞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시간과 시간에 대한 반응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독자는 숲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타벨을 보게 된다. 인간 사회의 질서와 질서를 벗어나 있는 숲은 위험, 모호함, 혼란, 미지(未知), 욕망 등이 지배하는 장소이다. 그녀가 안전한 성을 두고 위험천만한 숲에 간 것은 “전날 밤 내내 / 자기 약혼자인 기사 꿈을 꾸었고 /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연인이 무사하기를 빌며 / 한밤중 숲에서 기도”(“She had dreams all yesternight / Of her own betrothed knight; / And she in the midnight wood will pray / For the weal of her lover that's far away”)(27-30)하기 위해서이다. 크리스타벨은 한밤중에 연인 기사의 안전을 성이 아니라 숲속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아버지인 리올라인이 그 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녀가 성보다는 숲에서 기도의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법과 규범으로 통제된 고성은 초자연적인 것과 연결되는 기도와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을 장소이다. 리올라인의 성을 지배하는 분위기는, 죽은 부인을 애도하기 위해, 아침기도 종소리를 관습화하고 법제화할 정도로 억압적이고 통제적이다. 하지만 성주(城主)의 딸임에도 아무도 크리스타벨의 부재를 알아차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경비원과 마스티프종 암개는 그녀가 성벽을 나가 홀로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지 않는다. 또한 죽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유모나 여성에 대해 시에서 묘사하는 부분이 없다. 리올라인과 크리스타벨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스타벨의 어머니는 죽었고, 딸에게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기사 연인은 곁에 없다. 부인의 죽음에 강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와 살고 있기에, 크리스타벨은 한밤중 성 밖 숲속에서 연인인 기사를 위해 기도한다.

수도사의 전하는 말에 따르면, 크리스타벨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는 임종의 자리에서 “[딸의] 혼인날 성의 종이 / 열두번 치는 소리를 들겠노라”(“she should hear the

castle-bell/ Strike twelve upon my wedding-day”(200-01)고 말했다. 죽음과 탄생과 결혼을 하나로 엮는 어머니의 유언은 크리스타벨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한다.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는 수도사의 목소리와 결혼을 암시하는 종소리는 그녀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크리스타벨의 삶과 향유방식을 규정”(김영희 6)한다. 크리스타벨은 죽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애도의 세계에서 어머니의 욕망을 실현하려 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만이 진정 어머니를 충실히 애도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욕망을 실현할 존재를 찾으며, 어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존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욕망한다. 이 대상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구멍과 심연을 채울 수 있는 존재, 곧 어머니의 존재를 대리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욕망의 대상을 통해 크리스타벨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자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 숲속에서 그녀가 연인 기사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녀는 꿈에서 보았던 기사의 무사함을 기도하면서, “부드럽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다”(“The sighs she heaved were soft and low”)(32). 이 한숨은 기사에 대한 갈망과 모성에 대한 애착을 동시에 암시한다.

크리스타벨이 기도하는 숲은 그녀의 욕망이 투사된 듯 에로틱한 요소로 가득하다. 그녀가 숲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그녀의 욕망으로 채색된 듯하다. 참나무는 “젓가슴이 넓고”(“broad-breasted”)(43), 불어오는 바람은 “그 사랑스런 숙녀의 볼에서/ 자그마한 곱슬머리를 치울 만큼”(“To move away the ringlet curl/ From the lovely lady’s cheek”)(46-47) 감미롭다. 크리스타벨이 제럴다인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그녀의 욕망이 하나하나 구현되는 과정처럼 보인다. 그녀는 숲속을 떠돌다가 알 수 없는 “무엇”(“It”)(39)인가가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암시하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듣는다. 처음에 그 “무엇”은 어떤 형태를 띠지 않고 일종의 무존재로 출현한다. “무엇인가 근처, 바로 근처에서 신음했지만/ 그제 뭘지 그녀는 알 수가 없다”(“It moaned as near, as near can be, / But what it is she cannot tell”)(39-40). 그런 후 “신음”하는 “무엇”은 목과 팔처럼 신체의 일부분으로 ‘물신화’(fetishization)하여 나타난다. “그녀의 위엄 있는 목과 팔은 맨살 그대로였다”(“Her stately neck, and arms were bare”)(62). 크리스타벨의 욕망은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서서히 구현된다. 바람 소리를 언급한 지 14행 뒤에, 그리고 어떤 소리에 크리스타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지 21행 뒤에, 참나무 아래의 신음소리는 비로소 그 정체가 밝혀진다. 마침내 신음하는 존재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Beautiful

exceedingly”)(68)를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크리스타벨의 욕망이 투사된 숙녀는, “너무나”라는 말이 암시하듯, “자연스러움과 적절함을 넘어서는 과도함”(May 703)을 지닌다. 테일러(Anya Taylor)의 지적처럼, 참나무의 반대편에서 신음하는 제럴다인은 “크리스타벨의 꿈의 투영이거나 인격의 한 측면일 수 있다”(712). 크리스타벨은 우연히 어머니에 대한 욕망의 창에 들어온 제럴다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연인의 이미지를 투사한다. 이 이유에서 제럴다인을 묘사하는 말인 “위엄 있는 목”은 남성적 풍모를 떠올리게 한다. 크리스타벨은 욕망의 창에 들어온 제럴다인에게 어머니와 기사에 대한 욕망을 투사하기에, 그녀에게 제럴다인은 어머니와 연인이라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인 형태를 지닌다. 이는 향후 크리스타벨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낳는다.

크리스타벨은 축 늘어진 제럴다인을 부축해 해자를 건넌 후, 딱 들어맞는 열쇠를 꺼내 성문의 한 가운데 나 있는 작은 출입문을 연다. “안팎으로 강철판으로 둘러싸인, / 군대가 전투 대형으로 행군해 나갔던 그 정문”(“The gate that was ironed within and without / Where an army in battle array had marched out”)(127-8)은 리올라인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의 통제와 견고함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암시한다. 성문 문턱을 넘는 것은 성을 지배하는 “관습과 법”(“the custom and law”)(338)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크리스타벨의 의지를 드러낸다. 성 문턱을 넘는 것은 또한 가부장제의 문턱을 여는 것이자 넘어섬이며, 그 문턱으로 되돌아감이다.

마스티프 암개와 경비병을 피해 제럴다인을 침실로 이끈 후, 크리스타벨의 욕망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제럴다인이 지친 듯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크리스타벨은 “어머니가 들꽃들을 모아 만든”(“My mother made it of wild flowers”)(193) “야생화주”(“the wild-flower wine”)(220)를 건넨다. 그녀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어머니의 야생화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야생화주가 부재하는 어머니의 젖을 대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야생화를 건넌 후, 크리스타벨은 “어머니가 태어난 바로 그 시각에 돌아가셨다”(“She died the hour that I was born”)(195)고 제럴다인에게 말한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럴다인에게 이런 말을 건넨는 상황은 상당히 어색하고 낯설다. 크리스타벨의 ‘과도한’ 고백은 제럴다인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채우려는 그녀의 욕망과 무의식을 반영한다. 그녀는 어머니와 관련하여 혼란된 감정을 지닌다. 크리스타벨은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었다고 믿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버려졌다는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보호를 갈망하고, 어머니의 부재에 분노하고, 동시에 어머니의 도움 없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Welch 169). 크리스타벨은 제럴다인을 통해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의 대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를 애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크리스타벨이 제럴다인에게 욕망을 투사하며 행하는 애도는 어머니를 대체하고 배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욕망을 실현하는 것은 언제나 대가가 뒤따른다. 어머니의 부재를 채우려는 순간 어머니는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욕망의 채움은 욕망의 대상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욕망의 이러한 역설은 야생화자와 크리스타벨의 말에 힘을 얻은 제럴다인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어머니의 수호 정령을 내쫓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꺼져요, 떠도는 어머니여! 말라비틀어져 버려요!
 ‘난 당신에게 꺼지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꺼져요, 여인이여, 꺼져요! 이 시간은 내 것이오—
 ‘비록 당신이 그녀의 수호 정령이라 하더라도,
 ‘꺼져요, 여인이여, 꺼져요,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거요.’

‘Off, wandering mother! Peak and pine!
 ‘I have power to bid thee flee.’

 ‘Off woman, off! this hour is mine—
 ‘Though thou her guardian spirit be,
 ‘Off woman, off! ’tis given to me.’
 (205–206 / 211–213)

어머니의 분신이 되기 위해, 제럴다인은 어머니를 물리치고 어머니의 특권을 취한다. 제럴다인은 어머니의 수호 정령을 내쫓는 힘을 “역설적으로 어머니의 야생화자에게서 부여 받는다”(May 708). 제럴다인이 크리스타벨에게 행했던 권위는 어머니의 권위이다.²

침실에서 크리스타벨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제럴다인은 자신도 옷을 벗고 “젓가슴과 허리 절반”(“her bosom and half her side”)(252)을 드러낸다. 크리스

² 얼머(William A. Ulmer)는 크리스타벨의 어머니 유령을 물리치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제럴다인이 크리스타벨의 대리모가 된다고 지적한다(390). 그밖에 제럴다인을 대리모로 보는 해석으로는 Rzepka, Swann, Schapiro를 참조할 것.

타벨에게 제럴다인의 젓가슴은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욕망과 연인을 향한 욕망을 동시에 상징한다. 제럴다인은 “크리스타벨의 무의식과 리비도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자리”(Ulmer 391)이다. 그녀는 크리스타벨의 욕망을 불길한 방식으로 행사한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제럴다인이 크리스타벨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럴다인이 어머니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연인이자 동시에 어머니의 불길한 분신이기 때문이다. 제럴다인이 어머니의 위치와 어머니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의 위치(연인)를 동시에 점하기 때문에, 크리스타벨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이런 이유에서 “이 젓가슴의 닿음”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결합뿐만 아니라 연인 간의 성적 결합을 암시한다.³ 그것은 또한 제럴다인이 크리스타벨의 욕망을 정복하였음을 나타낸다.

크리스타벨은 어머니의 애도 과정에서 어머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머니와 연인의 분신을 동시에 구현할 수 없다. 어머니를 구현하면 연인은 사라지고, 연인이 구현되면 어머니는 존재할 수 없다. 크리스타벨의 무의식은 제럴다인이 구현하는 이중적 분신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내 모순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결국 그 생각을 죄의식의 형태로 억압한다. 제럴다인의 응시로 환기되는 어머니와 연인은 꿈과 밤의 세계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삶으로 분출되면, 그것은 어머니의 애도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침묵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제럴다인은 “이 젓가슴과 닿음으로써 마력이 작용하고, / 그것이 그대의 발언을 지배하라, 크리스타벨이여!”(“In the touch of this bosom there worketh a spell, / Which is lord of thy utterance, Christabel!”)(267–268행)라고 말한다. “젓가슴과 닿음”으로 크리스타벨과 제럴다인 사이에서 힘의 도치가 일어난다.

크리스타벨은 제럴다인과의 관계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켰지만,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발언할 수 없다. 처음에 크리스타벨은 제럴다인에게서 잃어버린 어머

³ 크리스타벨과 제럴다인 사이의 관계를 여성동성애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Grossberg를 참조할 것. 쿠퍼(Andrew M Cooper)는 “이 시의 침실 장면에는 여성동성애가 암시”되어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하며(85), 키쉬(William Keach)는 “이 시의 에로틱한 면”은 “동성애적인 성성향에 대한 분명한 암시”를 나타낸다고 본다(507). 한편 동성애 이외에도 비평가들은 크리스타벨과 제럴다인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스페츠(Jonas Spatz)가 이 둘의 관계에서 사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로서 “성적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109), 파이프(H. W. Piper)는 “고통뿐 아니라 깨달음과 기쁨”을 찾는다(78). 반면 루터(Susan Luther)는 크리스타벨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성숙한 성인의 정서적 기능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죽음’”이라 본다(11).

니를 찾아 만족감으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손발 근육이 풀어지고, 안색은/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진다”(“Her limbs relax, her countenance/ Grows sad and soft”)(313-14). “그녀는 미소 짓다가 또 울고”(“she doth smile, and she doth weep”)(319). “달콤한 환영을 본 듯하다”(“she hath a vision sweet”)(326). 하지만 욕망의 충족은 이내 지울 수 없는 죄의식으로 변모한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타벨은 잠에서 깨어 제럴다인의 젓가슴 밑을 졸라맨 속옷을 보고, “분명 내가 죄를 지었구나!”(“Sure I have sinn’d!”)(381)라고 외친다. 그녀가 죄의식을 지니는 것은 일종의 억압이 작용하고, 그 결과 발언의 상실에 이르게 됨을 암시한다. 김재오의 지적처럼, “이 대목은 잠시 해제되었던 크리스타벨의 죄의식이 욕망의 위반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언표를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을 보여준다”(50). 크리스타벨의 죄의식은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제럴다인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저버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크리스타벨은 제럴다인이 어머니의 자리에 완벽히 상응하기를 기대했지만, 어머니를 대체하는 제럴다인은 역설적으로 어머니의 존재를 억압한다. 죄의식은 크리스타벨이 욕망을 충족한 대가로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발언을 빼앗긴다.

III. 리올라인의 물신화된 애도: 아침기도 종소리와 롤런드와의 화해

1부가 죽은 어머니와 관련하여 크리스타벨과 제럴다인 사이의 욕망을 다룬다면, 2부는 장면이 확대되어 크리스타벨, 제럴다인, 리올라인 간의 복잡한 욕망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장면의 확대와 더불어 배경도 전환된다. 1부가 무의식이 지배하는 자정 무렵, 숲과 크리스타벨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다면, 2부는 법과 이성 지배하는 낮 시간, 성에서 일어나는 인물들 간의 욕망을 보여준다. 성은 리올라인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다. 아침기도 종소리를 관습화하고 법제화함으로써, 그는 죽은 부인의 애도를 관리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옥죄고 지배한다.

그래서 그 관습과 법이 생겨났다.

늘 동틀 무렵 제시간에

육중한 종을 잡아당기는 성당지기가 종을 치는 사이에

매번 마흔다섯 개의 묵주를 세며 기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브래서헤드에서 윈더미어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경고의 조종을

듣지 않을 수 없다.

And hence the custom and law began
That still at dawn the sacristan,
Who duly pulls the heavy bell,
Five and forty beads must tell
Between each stroke—a warning knell,
Which not a soul can choose but hear
From Bratha Head to Wyndermere. (338-344)

리올라인은 죽은 부인을 기념하는 아침기도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출산 중 죽은 부인의 부채를 깨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종소리와 “관습과 법” 간의 연계성을 통해서만, 그리고 “마흔다섯 개의 묵주”를 세는 정확하게 규정된 아침기도를 통해서만 부인에 대한 애도를 행할 뿐이다. 이것은 애도에 대한 가부장적 신념을 “관습과 법”으로 부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잠에서 깨어 부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When he rose and found his lady dead”)(335) 그날 아침 이래로, 그는 “관습과 법”이라는 상징적 힘을 강화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죽음의 세계”에 대항하고, 산자의 삶에서 망자를 배제한다. 리올라인은 “죽음의 세계”(“a world of death”)(332)에 저항하는 상징의 힘을 강조하면서 애도에 “관습과 법”을 부과한다. 부인의 죽음이 아침기도 종소리로 물신화될 때, 죽은 부인의 애도는 그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으로 굳어지게 된다. 유선무의 지적처럼 리올라인의 감정이 “그것이 슬픔이든 좌절이든 분노이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작품 어디에서도 한 번도 묘사”되지 않으며, 슬픔의 감정이 배제된 부인의 애도는 “사랑하는 부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일반적 진실의 재확인에 지나지 않는다”(205-06). 이러한 무감정의 애도에서 죽은 부인의 독특성과 타자성은 사라진다. 리올라인은 죽은 부인의 애도를 제어하고, 법과 지식이라는 총체 속에서 구분하고 범주화한다.

리올라인은 아침기도 종소리를 관습과 법으로 삼으로써, 또한 애도 방식에 ‘하나의 해석’과 ‘하나의 진실’을 강박적으로 강요한다. 하지만 리올라인의 부인은 산자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망자이기에, 관습이든, 법이든, 지식이든, 산자의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으며 항상 낯선 타자로 존재한다. 애도의 부름에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망자의 타자성과 대체불가능성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망자에 대한

애도는 언제나 계산할 수 없고 프로그램되지 않은 결정을 요구한다. 망자를 애도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망자의 타자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의 애도는 언제나 또 다른 애도를 불러내야 한다. 하지만 “관습과 법”을 통해 애도의 반복을 요구하는 리올라인은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언제나 기계적이고 노예와 같은 반복으로 전락시킨다. 매번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하는 애도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 리올라인은 애도를 “관습과 법”으로 고정하여, 하나의 의미와 해석으로 축소하고,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의 애도를 요구한다.

음유시인 브레이시는 리올라인과 달리 아침기도 종소리에서 여러 의미를 찾아낸다. 그는 종소리 사이의 공간에 균열이 있고, 그곳에서 “죄 많은 세 성당지기의 수호 정령”이 살아 있는 동료에게 사망 통고를 돌려주면서 종소리를 조롱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엔, 종소리와 종소리 사이의 공간을 채워 줄
그런 것은 충분히 널려 있으니,
랭데일파이크와 위치스레이,
또 것처럼 험하게 갈라진 던전 길에는
바위 밧줄과 바람의 종들로
죄 많은 세 성당지기의 유령이 갇혀 있는데,
모두 살아 있는 동료에게
사망 통고를 차례차례 돌려주지,
또 종종 그 종소리에 불쾌해져,
수호 정령들의 하나! 둘! 셋! 소리가 끝나자마자
악마는 보로데일에서 들리는 명량한 종소리로
그 음울한 숫자를 조롱하지.

There is no lack of such, I ween,
As well fill up the space between.
In Langdale Pike and Witch's Lair,
And Dungeon-ghyll so foully rent,
With ropes of rock and bells of air
Three sinful sextons' ghosts are pent,
Who all give back, one after t'other,
The death-note to their living brother;
And oft too, by the knell offended,
Just as their one! two! three! is ended,
The devil mocks the doleful tale

With a merry peal from Borodale. (348-359)

시인 브레이시는 종소리 사이의 간격을 수호 정령, 악마, 조롱하는 웃음과 같은 것으로 채우고 종소리를 복제하고 교란함으로써, 종소리 사이의 “공간”을 읽는 방법이 결정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악마의 조롱은 종소리를 반복하는 수호 정령과 음울한 숫자를 명량한 종소리로 바꾸며, 관습과 법에 의존하는 리올라인의 애도가 지닌 허구를 드러내고, 비웃고, 해체시킨다. 리올라인의 물신화된 애도와는 달리, 브레이시는 아침기도 종소리가 삶과 죽음을 융합하고, 시공간을 혼합하고, 기괴함과 끔찍함으로 침입하고, 대상과 의미를 불확실하게 하고, 서사를 문제화한다는 것을 긍정한다. 채닉(Debra Channick)은 아침기도 종소리가 본래의 의미를 교란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당지기의 사악한 상대는 아침기도 종소리의 힘에 버금가는, “하나! 둘! 셋!”처럼 단호한 대답으로 성당지기의 노력을 조롱한다. 메아리가 “차례차례 되돌려질” 수 있다면, 각 메아리는 최초의 종소리와 동일한 충격으로 리올라인 경 주변을 맴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소리의 반향으로 인해, 어떤 소리가 리올라인 경의 수면을 방해하는 아침기도 종소리인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메아리가 의미의 확산에 대해, 즉 본래의 소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와 유령 같은 메아리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The sacristan's evil counterpart mocks his efforts with an emphatic reply, “one! two! three!” that seems to equal the matin bell's force. If the echoes can be “give[n] back, one after t'other,” then one can suppose that each echo haunts Sir Leoline with the same impact as the initial matin bell. Indeed the reverberations make it impossible to determine which sound is the matin bell that disrupts Sir Leoline's sleep because the echoes call into question the assurance of signification, that one can determine an original sound and not mistake it for its ghostly echo. (11)

리올라인은 제럴다인의 사연을 듣던 중, 그녀가 아버지의 이름인 롤런드 경을 얘기하자 창백해지며, 그 이름을 거듭 중얼거린다. 그는 롤런드 경과 있었던 과거의 일을 슬퍼한다. 롤런드와 리올라인의 젊은 시절의 돈독한 우정은, “각자 마음속의 가장 가까운 형제”(“his heart's best brother”)(417)에게 “속삭이는 혀들이 진실성에 독을 뿌림”(“whispering tongues can poison truth”)(409)으로써, 무너졌다. 두 젊은이의

“진실성”은 전복되고, 연대는 깨졌으며, 둘은 “돌로 쪼개진 절벽처럼”(“Like cliffs which had been rent asunder”)(422) 헤어졌다. 리올라인은 납치되었었다는 제럴다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롤런드와의 우정을 회복하려는 방편으로 삼는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크리스타벨에게 제럴다인은 욕망의 주체인 어머니와 욕망의 대상인 연인이라는 이중의 형태를 띤다. 유사하게 리올라인에게 제럴다인은 죽은 부인과 죽은 부인의 애도를 동시에 대체하는 존재이다. 그는 제럴다인을 통해 부인의 애도를 대체하고, 제럴다인을 부인으로 삼아 죽은 부인의 존재를 지우려 한다. 아침기도 종소리의 관습화와 법제화로 죽은 부인의 애도를 대체했던 리올라인은, 그 애도를 롤런드의 화해로 대체함으로써, 여전히 죽은 부인의 타자성을 포용하거나 감싸 안지 않는다. 리올라인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아침기도 종소리를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의 등가물로 만들었고, 이제 제럴다인을 만나면서 부인의 애도에 대한 또 다른 등가물을 생산한다. 죽은 부인의 상실을 어린 시절 우정의 회복으로 상쇄하고 제럴다인을 새 부인으로 삼음으로써, 그는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마무리하려 한다.

리올라인은 관심의 대상을 죽은 부인의 분신인 크리스타벨에서 헤어진 친구의 딸인 제럴다인으로 옮긴다. 그는 제럴다인의 아름다움에 눈에 떨 정도로 흥분하고, 그녀를 너무 따뜻하게 포용한다. 리올라인은 “제럴다인을 접할 때, 여전히 자신의 이성을 억압하고, 열정에 사로잡힌다”(Woodford 113). 그의 행동은 제럴다인을 매개로 죽은 부인의 애도를 대체하고 싶어 하는 그의 무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리올라인이 오랫동안 제럴다인을 포용할 때, 그녀가 아버지가 욕망하는 대상임을 크리스타벨은 곧 깨닫는다. 크리스타벨은 너무 혼란스러워, “영혼” 위에 드리운 “공포의 환상, 그 촉감과 고통”(“The vision of fear, the touch and pain”)(453)을 경험하고, 동물의 소리인 뱀의 “슈웃 소리를 낸다”(“a hissing sound”)(459). 그녀는, 지난밤 행한 일로 인해 제럴다인의 정체를 밝힐 수 없기에, 고통의 신음만을 내뿜고 뱀의 특징을 취할 뿐이다. 윤준의 지적처럼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타벨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그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189).

리올라인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 크리스타벨에게, “그런데 내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괴롭히는 게 뭐지?”(“What ails then my beloved child?”)(471)라고 묻는다. 그녀는 전날 밤 제럴다인과 있었던 일에 죄의식을 느끼기에, 아버지에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말할 수 없고, 자신의 현재 상태나 과거의 욕망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단지 두려움으로 몸을 떨 뿐이다. 그 어리석은 마력 혹은 죄의식 때문에, 그녀는 제럴다인에 대해 보았거나 기억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잘될 거예요!”(“All will yet be well!”)(473)라고 그녀는 말할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리올라인은 더 이상 딸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내 제럴다인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실행에 옮긴다. 그는 브레이시에게 명령하여, 즉시 길을 떠나 롤런드에게 가서 소중한 딸인 제럴다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도록 한다.

리올라인이 제럴다인에 대한 욕망에 빠져 딸의 고통을 외면하자, 브레이시는 자신이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한밤에 자다가 본 괴이한 꿈 이야기를 꺼낸다. 브레이시는 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리올라인의 사랑스럽고 순진한 딸과 관련된 꿈임을 던지시 말한다.

따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온순한 새, 그 비둘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That gentle bird, whom thou dost love,
And call'st by thy own daughter's name- (534-35)

꿈을 해석할 때, 브레이시는 뱀이 위협적이고 “부정한 존재”(“thing unblest”)(531) 존재이며, 비둘기가 크리스타벨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뱀과 비둘기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리올라인에게 위험에 처해 있는 크리스타벨을 보호할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다. 하지만 리올라인은 같은 꿈을 정반대로 해석한다.

‘롤런드 경의 아름다운 비둘기인 예쁜 처녀여,
하프나 노래보다 더 강한 무기로
그대의 부친과 내가 뱀을 박살 내 버리리라!’

‘Sweet maid, Lord Roland's beauteous dove,
With arms more strong than harp or song,
Thy sire and I will crush the snake!’ (571-73)

브레이시의 꿈은 뭔가 수상쩍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리올라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꿈에서 비둘기에 대해 들은 것을 무시한다. 그는 오히려 비둘기가 제럴다인이고, 뱀이 제럴다인을 납치하여 나무 아래에 남겨둔 사람들을 상징

한다고 믿는다. 즉, 그는 비둘기가 제럴다인을 지시하고, 그녀가 사악한 뱀에 의해 무고를 당한 희생자라고 확신한다.

브레이시의 꿈 이야기는 크리스타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신이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임을 상기시킨다. 꿈 이야기에 힘을 얻은 크리스타벨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며 호소한다.

어머니의 영혼을 걸고 간청 드리는데,
제발 이 여자를 보내 버리세요!

By my mother's soul do I entreat
That thou this woman send away! (618-19)

크리스타벨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아버지의 딸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최고 권위로 어머니의 기억을 내세우며, 자신이 어머니의 살아 있는 유일한 기념물이자 분신임을 상기시킨다. 크리스타벨은 죽은 어머니의 대체불가능성과 어머니에 대한 애도의 부채를 떠올리고, 산자가 망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아버지에게 일깨워준다. 크리스타벨은 아버지에게 제럴다인을 내보냄으로써 어머니의 애도를 롤런드와의 화해로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제럴다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호소한다. 지난 밤 제럴다인과의 경험을 통해 크리스타벨은 어머니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어머니의 애도는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대체할 수 없음을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된다. 크리스타벨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것은 어머니의 대체불가능성이다.

크리스타벨의 간청에 리올라인은 딸아이가 죽은 부인의 유일한 분신임을 어렵게 느낀다. 그의 “가슴과 머릿속”(“heart and brain”)(638)은 “분노와 고통”(“rage and pain”)(640)으로 가득하고 혼란스럽다. 리올라인은 크리스타벨과 제럴다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한다. 잠시 복잡한 감정으로 갈등하지만, 이내 그는 친구의 딸아이를 받아들이고 딸아이(그리고 부인)을 물리친다. 리올라인은 제럴다인을 매개로 부인에 대한 애도를 옛 친구에 대한 애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타벨을 부당하게 대한다. 그는 윤리적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손님 앞에서 그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크리스타벨에게 화를 낸다.

자기의 유일한 혈육에 의해 체면을 깎이게 되고,

고초를 겪은 친구 딸에 대한
자신의 온갖 환대가
여자의 질투심 이상의 것에 의해
이렇게 창피한 결말로 마무리되다니—

Dishonoured by his only child,
And all his hospitality
To the wronged daughter of his friend
By more than woman's jealousy
Brought thus to a disgraceful end— (645-49).

귀족들 사이에는 매우 엄격한 환대의 규범이 있고, 이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작은 실수라도 엄청난 경멸을 준 것으로 간주된다. 갈등했지만 마침내 리올라인은 이 가엾은 제럴다인을 보호해야 할 기사이자 성의 주인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크리스타벨이 그 명예를 모독하고 욕되게 했다고 결론 내린다. 롤런드와의 관계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바로 그때, 건방진 딸이 그 기회를 망치고 롤런드 경의 딸 앞에서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그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화를 낼 이유가 되지만, 리올라인이 표현하는 감정은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극단적인 감정은 그의 욕망—롤런드와의 화해로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대체하고, 제럴다인을 부인으로 삼아 죽은 부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욕망—이 자신의 딸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정반대의 감정인 분노로 표출된 것과 다르지 않다. 곧 크리스타벨에 대한 분노는 자신의 욕망에 상처를 내리는 딸아이에게 벌을 내리고, 욕망을 회복하려는 리올라인의 무의식적 충동에서 비롯된다. 리올라인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타벨에 대한 표면적인 분노, 제럴다인에 대한 성적 욕망,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헤어진 친구에 대한 애도로 바꾸려는 욕망 등이 결합되어, 모욕감과 분노와 고통을 과도하게 표출한다. 또한 한편으로 리올라인의 분노, 딸의 ‘동반자’에 대한 성적 이끌림, 딸의 저버림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이를 배제하는 그의 자기애와 “자기 몰두”(Taylor 717)를 상징한다. 리올라인은 아침기도 종소리를 관습과 법으로 만듦으로써, 성안을 압제하고, 그곳을 죽음의 세계로 채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검열하고 침묵시킨다. 그는 또한 크리스타벨에게 도움을 주는 꿈 이야기를 했던 음유시인을 억압한다. 마지막으 그는 제럴다인에 대한 크리스타벨의 무례를 과썸하게 여기고는, 죽은 부인의 유일한 혈육인 딸을 재빨리 저버리고 제럴다인을 “새 딸이자 새 부인”(Taylor 716)으로 삼으려 한다. 리올라인이 크리스타벨의 간청을 물리치는 것은 그가 죽은 부인

의 애도를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리올라인의 윤리적 책임은 부인의 죽음에서부터 생겨난다. 그것은 자신과 관련된 책임이나 자신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죽은 부인에게서 유래하는 책임이다. 아침기도 종소리를 “관습과 법”으로 삼아 부인의 애도를 물신화했던 것처럼, 리올라인은 또한 우정의 파탄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부인의 죽음을 자리매김하고, 죽은 부인을 배반하고, 죽은 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미 아침기도 종소리의 관습화와 법제화로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물신화했던 리올라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죽은 부인의 애도를 롤런드와의 화해와 제럴다인과의 결혼으로 대체하려 한다. 그는 이를 위해 교묘하게 부인의 죽음과 우정의 파탄 사이의 유사성을 전제한다. 동일성과 유사성의 기준에 따라, 그러한 동일성 바깥에 존재하는 두 사건의 차이 자체를 차단하고 추상화하여, 결코 심연을 드러내지 않는 부인의 타자성을 단일한 소실점을 가진 관점으로 환원한다. 죽은 부인에 대한 리올라인의 애도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아침기도 종소리와 같은 물신화나 롤런드와의 화해와 같은 유사성을 매개로만 행해진다. 결국 리올라인의 애도에서 그에게 죽은 부인의 고유함과 대체불가능성은 상실되고, 다른 이와 유사성으로만 파악되는 동일자로 환원된다.

리올라인과 달리, 크리스타벨은, 타자로서의 어머니에 강조점을 둬으로써,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해 망각하지 말 것과 어머니를 경외하는 애도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물신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기계적인 반복으로 애도의 법을 지워내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죽은 어머니의 절대적 타자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새로이 부각시키려 한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아버지의 욕망을 접한 이후, 크리스타벨은 어머니의 자리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도가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기계적인 애도에 머물러 있던 아버지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 어머니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을 간청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리올라인에게 죽은 어머니를 관습이나 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혼의 눈으로 애도할 것과 어머니의 타자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긍정할 것을 호소한다. 망자의 타자성과 대체불가능성을 포용하고 긍정하는 것은 자아의 동일성에서 배제되는 망자의 타자성을 강조하고, 억압적인 관습과 법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망자가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크리스타벨이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애도는 결코 “관습이나 법”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특이성을 받아들이는 애도이다. 그녀에게 진정한 애도는 매번 망자에게 다른 의미와 감정으로 다가오며, 어떤 단일한 의미로 고정하고 물신화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충실한 애도는 리올라인처럼 관습과 법을 통해 계산하고 확정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리올라인의 물신화된 애도는 슬픔, 좌절, 분노와 같은 감정을 배제한 편안하고 맥 빠진 비윤리적 애도일 뿐이다. 그는 애도의 의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습과 법”으로 죽은 부인에 대한 애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리올라인과 달리, 크리스타벨은 관습과 법과 같은 것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죽은 어머니의 타자성, 그 심연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음을 받아들여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긍정한다. 결국 크리스타벨은 죽은 어머니의 타자성을 어떠한 동일성의 법칙으로 고정하거나 범주화하거나, 나의 앓과 이해와 대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애도의 윤리학을 실천한다.

IV. 결론: 망자와 진정한 애도의 주체

윤리적으로 망자를 충실히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망자의 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망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올라인은 그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물신화와 유사성을 통해 부인에 대한 애도를 기계적인 것으로 축소한다. 제럴다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리올라인이 죽은 아내의 타자성을 제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리올라인의 행위는 죽은 부인과 딸에 대한 윤리적 애도의 실패, 애도의 불충실성일 수밖에 없다. 그의 선택은 부인과 딸에 대한 심각한 상징적 폭력을 함축한다. 그는 자신의 애도의 ‘종결’이 딸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크리스타벨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제럴다인을 통해 구현하지만, 이내 죽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의식을 갖는다. 그녀는 제럴다인에 대한 리올라인의 욕망을 보면서, 아버지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애도를 롤런드와의 화해로 대체함으로써,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어머니의 고유성과 차이를 지우고 애도의 심연에 다리를 놓음을 알게 된다. 제럴다인을 내보내라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간청하면서, 크리스타벨은 어머니에 대한 애도에 충실할 것을 아버지에게 간청한다. 그녀는 죽은 어머니의 타자성이 결코 심연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도에 충실한다. 그녀의 애도는 “관습과 법”을 통해 죽은 어머니의 독특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다른 것으로 어머니와의 애도를 대체하지도 않는, 진정한 애도의 궤적을 그린다. 미완성인 『크리스타벨』의 예상 결말이 무엇이든, 결국 죽은 어머니의 타자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존중하며 무조건적이고 저항할 수 없고 상처받으면서도 매번 다

시 애도를 경험할 때, 크리스타벨은 비로소 진정한 애도의 주체로 거듭난다.

〈한양대〉

주제어: S. T. 콜리지, 『크리스타벨』, 애도 윤리학, 욕망의 변증법, 타자성

Works Cited

- Ashton, Rosemary. *The Life of Samuel Taylor Coleridge: A Critical Biography, Blackwell Critical Biographies*. Oxford: Blackwell, 1996. Print.
- Channick, Debra. "'A Logic of Its Own': Repetition in Coleridge's 'Christabel.'" *Numéro* 50 (2008): 1-27. Print.
- Coleridge, S. T. *Coleridge's Poetry and Prose*. Eds. Nicholas Halmi, Paul Magnuson, Raimonda Modiano. New York: Norton, 2004. Print.
- Cooper, Andrew M. "Who's Afraid of the Mastiff Bitch? Gothic Parody and Original Sin in *Christabel*." *Critical Essays on Samuel Taylor Coleridge*. Ed. Leonard Orr. New York: G. K. Hall, 1994. 81-107. Print.
- Durham, Margery. "The Mother Tongue: 'Christabel' and the Language of Love." *The (M)other Tongue: Essays in Feminist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Eds. Shirley Nelson Garner, Claire Kahane, and Madelon Sprengnether. Ithaca, N.Y.: Cornell UP, 1985. Print.
- Ford, Jennifer. *Coleridge on Dreaming: Romanticism, Dreams and the Medical Imagination*. New York: Cambridge UP, 1998. Print.
- Gaskins, Avery F. "Dramatic Form, 'Double Voice,' and 'Carnivalization' in 'Christabel.'" *European Romantic Review* 4.1 (1993): 1-12. Print.
- Grossberg, Benjamin Scott. "Making Christabel: Sexual Transgression and Its Implications in Coleridge's 'Christabel.'"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2001): 145-65. Print.
- Keach, William, *Samuel Taylor Coleridge: The Complete Poems*. London: Penguin Books, 1997. Print.
- Kim, Jae-Oh. "The Figuration of Geraldine and Coleridge's Epistemological Dilemma."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2 (2009): 43-60. Print.
[김재오. 「제럴다인의 형상화와 코올리지의 인식론적 딜레마」. 『신영어영문학』 42 (2009): 43-60.]
- Kim, Young-Hee. "The Dialectic of Desire in Coleridge's 'Christabel': A Lacanian Approach."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 (2010): 1-19. Print.
[김영희. 「콜리지의 『크리스타벨』에 나타난 욕망의 변증법」. 『신영어영문학』 45 (2010): 1-19.]
- Luther, Susan. *Christabel as Dream-Reverie*. Salzburg: Universitat Salzburg, 1976. Print.
- May, Claire B. "'Christabel' and Abjection: Coleridge's Narrative in Process/on Tria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37.4 (1997): 699-721. Print.
- Piper, H. W. "Nature and the Gothic in *Christabel*." *The Singing of Mount Abora: Coleridge's Use of Biblical Imagery and Natural Symbolism in Poetry and Philosophy*.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UP, 1987. 74-84. Print.

- Rzepka, Charles J. "Christabel's 'Wandering Mother' and the Discourse of the Self: A Lacanian Reading of Repressed Narration." *Romanticism Past and Present* 10.1 (1986): 17-43. Print.
- Ryu, Son-Moo. "Beyond the Romantic Mother: "Christabel" as a Narrative of Borderline." *Journal of English Studies in Korea* 24 (2013): 199-222. Print.
[유선무. 「낭만적 어머니를 넘어서; 경계의 서사로서의 「크리스타벨」 읽기」. 『영미문학연구』 24 (2013): 199-222.]
- Schapiro, Barbara A. *The Romantic Mother: Narcissistic Patterns in Romantic Poet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3: 61-85. Print.
- Spatz, Jonas. "The Mystery of Eros: Sexual Initiation in Coleridge's "Christabel."" *PMLA* 90 (1975): 107-16. Print.
- Sun, Heejung. "Coleridge's "Christabel" as *l'écriture féminine*."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6.2 (2010): 329-56. Print.
[신희정. 「코올리지의 「크리스타벨」—'여성적 글쓰기」. 『영어영문학』 56.2 (2010): 329-56.]
- Swann, Karen. "'Christabel': The Wandering Mother and the Enigma of Form," *Studies in Romanticism* 23 (1984): 533-53. Print.
- Taylor, Anya. "Coleridge's "Christabel" and the Phantom Soul."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2.4 (2002): 707-30. Print.
- Ulmer, William A. "Christabel and the Origin of Evil." *Studies in Philology* 104.3 (2007): 376-407. Print.
- Welch, Dennis M. "Coleridge's *Christabel*: A/Version of a Family Romance." *Women'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1.2 (1992): 163-84. Print.
- Woodford, Benjamin. "Narrating the Gothic Sublime in Coleridge's *Christabel*." *Literary Imagination* 18.2 (2016): 101-11. Print.
- Yoon, Joon. "The Experience of Evil: Coleridge's "Christabel.""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In English* 3 (2000): 167-96. Print.
[윤준. 「악의 경험 : 코올리지의 『크리스타벨』. 『19세기 영어권 문학』 3 (2000): 167-96.]

Notes on Contributor:

Ilhwan Yoon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Hanyang University. His primary research field is Romantic and Modern poetry.

Email: ilhwan_y@hanyang.ac.kr

Received: October 2, 2021.

Reviewed: October 18, 2021.

Accepted: October 28, 2021.